

삼성 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문조직은 회계제도의 변혁에 대한 대응과 내부통제 효과성 제고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 전문조직은 K-SOX Newsletter 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한 뉴스기사, 법제도 동향, 전문가 보고서, Q&A 등을 제공하고, 더불어 교육 및 강연 등 이벤트 소개를 통해 보다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여 추진하시는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K-SOX'는 Korea Sarbanes-Oxley Act 의 약자로,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의미합니다. **본문의 제목을 클릭하여 관련 보도자료, 보고서 등을 다운받거나 뉴스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n this Issue

I . Law & Regulation

II. Articles

III. FAQ

IV. News

V. Events

Key Contacts

I . Law & Regulation

최근의 법률 제·개정 내용 및 감독당국의 감독방향과 실무지침에 관한 정보

2019회계연도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시사점

(20.9.28,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주요내용

- 분석 결과
 - 내부회계 감사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 자산총액 2 조원 이상 대형 상장법인의 경우, 내부회계 비적정 의견 비율은 2.5%*로 전기 내부회계 검토 결과 비적정의견 비율(1.9%) 대비 소폭 증가(0.6%p ↑)
 - *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표명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 160사 중 156사(97.5%)는 적정의견이, 4사(2.5%)는 비적정의견(중요한 취약점 발견)이 표명됨
 - 당초 인증절차 강화(검토→감사)로 비적정 의견 비율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2 조원 이상 대형 상장법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풍부한 물적·인적자원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내부회계 감사를 준비한 것으로 평가

- 시사점
 - **향후 내부회계 감사대상의 단계적 확대*에 따라 가용자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상장법인이 감사대상으로 편입되는 2020 회계연도 이후부터는 비적정 의견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자산 5천억원 이상('20년), 1천억원 이상('22년), 1천억원 미만('23년)
 - 내부회계 감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금감원을 중심으로 이해관계자(한공회, 상장협·코협, 회계법인 등)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내부회계 관련 FAQ 및 교육컨텐츠 확대 제공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
 - 한편, 회계정보 이용자들은 재무제표 감사의견과 별도로 표명되는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갖는 정보효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의사결정 시 이를 고려할 필요
 - * 중요한 취약점을 공시한 경우, '회사의 現내부회계는 향후에 작성될 재무제표에 중요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을 의미

KPMG Insight

-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 기업 비중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원년 2019 년의 경우, 초기 계도 위주의 감독 기조였으나 향후 감독 강화가 예상됨
 - 첫 감사 대상이었던 2 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경우, 내부 T/F 및 외부용역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재정비를 진행하고 시행시기에 맞게 대비하였음
 - 그러나, 2022 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이 되는 5 천억원 미만(1 천억원 미만의 경우 2023 사업연도) 상장법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족한 인적·물적 자원으로 인해 사전 용역 등 감사 대비에 소홀할 수 있음
- 또한 2022 년부터 모회사 별도 자산총액이 2 조원 이상인 상장법인과 그 자회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도입될 예정으로 본사 뿐 아니라 국내외 자회사들을 아우르는 그룹 차원의 충분한 사전 준비와 체계적인 확산 방안이 요구됨
 - 특히 해외 자회사가 있는 그룹의 경우, 해외 외부감사인의 감사 강도에 준해 국내 모회사에 대한 감사 강도도 상향될 수 있음

회계이슈 사전예고 효과 및 테마심사·감리 결과 분석

-상장회사 등은 단순 회계위반 발견시 신속한 수정 필요

(20.11.5,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주요내용

- (사전예고 효과*) 테마심사 대상으로 사전예고한 회계이슈에 대해 당해 연도(T 년)에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상장회사 등의 비율이 점차 상승함

* 사전예고한 회계오류 취약분야에 대해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 단계부터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13년 도입

- 2016년 12월 ~ 2020년 5월 기간 동안 재무제표를 수정공시한 상장회사 등을 대상(총 549건)으로 오류 수정 실태를 분석한 결과,
 - 120건(21.9%)이 테마심사 대상 사전예고 회계이슈와 직접 관련한 오류사항을 수정*하였으며, 최근 들어 당해 연도(T년) 수정비율이 점차 상승
 - * 회계이슈 발표 당해 연도(T년) 또는 다음 연도(T+1년)까지 사전예고 회계이슈 내용을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수정
- (심사·감리결과) 테마심사·감리 지적사항은 고의적인 위반보다는 과실·중과실에 의한 위반이 대부분(95.8%)
 - 2014년 이후 테마심사·감리 결과 종결처리 된 143사 중 회계위반으로 지적된 회사는 48사(33.6%)로
 - 고의성 있는 회계위반보다는 위반동기가 과실(26사, 54.2%) 및 중과실(20사, 41.6%)이 대부분(95.8%)을 차지
- (상장회사 등 유의사항)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2019년 4월)에 따라 고의가 아닌 단순 회계오류에 대해서는 수정권고를 거쳐 경조치로 종결되므로
 - 상장회사 등은 테마심사 대상으로 공표된 회계이슈에 대해 오류여부를 검토하여 신속히 자진수정·공시할 필요
 - 한편, 금감원의 수정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적 또는 반복적 위반시에는 감리를 통한 중조치가 가능함

KPMG Insight

- 금융감독원이 2021년 중점점검 회계이슈로 ▲재고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의 적정성(영업권, 개발비 제외) ▲국외매출 회계처리의 적정성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예고하였음
 - 기업들은 테마심사 대상으로 사전 공표된 회계이슈에 대해서는 더 중점적으로 오류 여부를 검토하고 오류 발견 시 신속한 수정을 해야 함

[Back to top](#)

II. Articles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KPMG의 보고서, 국내외의 주요 연구 소개

「감사위원회 저널」 1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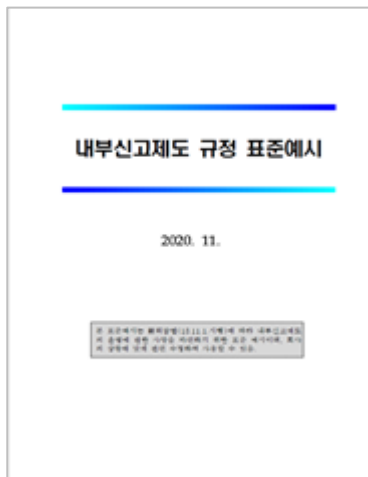


- ACI Insight
 - 기업의 ESG 전략 추진과 감사위원회 역할
 - 2019년 사업연도 韓美 내부회계관리제도 비교와 시사점
- Depth Interview
 - 코로나 19 상황하에서 감사위원회의 고려사항
- Beyond Data
 -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핵심감사사항 관련 커뮤니케이션
- Case Study
 - 전·당기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 시 해결 절차
- Law & Regulation
 -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금융그룹 공시 최초 실시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삼성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내부신고제도 규정 표준예시」



- 新외부감사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의무가 있는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내에 내부신고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함에 따라 내부신고제도 운영규정 표준예시를 제정함
- 주요 내용으로는 내부신고제도의 정의, 내부신고대상, 신고방법 및 신고처리, 익명성 보장 방안, 신고자 조치감면 등이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Back to top](#)

III. FAQ

新외부감사법 등 강화된 법규를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 감독당국·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등의 유관기관을 통해 자주 질의된 이슈를 답변 및 관련 법규와 함께 정리

연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범위 선정 시 양적기준 관련 질의

Q

- 당사는 연간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데이트 중 범위선정(Scoping)을 수행하는데 양적기준의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는 전기기준 재무제표를 사용함
 - 당기 재무제표는 분반기에 따라 숫자가 변동됨으로 인해서 핵심통제가 유동적이고 이를 연환산해서 양적 중요도를 측정해야 하는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임
- 내부회계관리제도 범위선정시 재무제표 계정과목의 양적기준 산출 시 확정된 전기 결산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당기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A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양적 기준은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원칙임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평가 대상 기간은 해당사업연도임(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적용 FAQ 22 번)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는 경영진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임(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11)
- 일반적으로는 전기 재무제표 또는 분반기 재무제표 금액을 기준으로 양적기준을 산정하고 평가시점에서 실제 재무상태나 경영성과가 크게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경을 고려함(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41)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범위선정 절차가 당기 재무제표가 확정되기 이전에 수행되기 때문임

관련 근거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1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는 경영진이 평가기준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재무제표에 기록된 거래는 회계기간 중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평가기준일과 가까운 시기는 반드시 평가 대상기간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평가기준일과 가까운 시기에 모든 평가 절차를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당해 평가 대상기간의 중간에 평가를 실시하고 기중에 평가된 중요한 통제 중 평가 실시 이후 변경된 부분은 없는지, 기말 현재에도 여전히 효과적인지 등을 확인하는 평가 절차가 효율적일 수 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41** 중요성 금액 또는 수행 중요성 기준을 설정한 이후, 평가시점에서 실제 재무상태나 경영성과가 크게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경을 고려한다. 예를 들어, 중요성 금액을 당해 평가기간의 추정 세전순이익에 의해 결정한 경우 평가시점의 실제 세전순이익이 추정금액과 크게 다르다면 중요한 변화로 판단할 수 있다.

IV. News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국내외 주요 동향

제목 클릭으로 기사 원문 확인 가능

국내 동향

- **간간해진 중소기업 내부회계감사, 한국거래소와 준비하세요 [국제신문, 20.10.26]**
 -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회계인력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제공 중
- **회계사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조서 작성 사례 발표 [조세일보, 20.09.25]**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조서 작성 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시.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역량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 **'내부통제 실패 금융사 경영진 제재' 국회 입법 '하세월' [헤럴드경제, 20.11.13]**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4건이 상정돼 있고, 이 중 내부통제 항목을 신설한 개정안은 2건.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할 임직원의 의무 명시

해외 동향

- **The Wirecard scandal: What needs to change [VOXEU, 2020.11.12]**
 - 와이어카드 사례를 통해 상장법인에 대한 감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8가지 방안 소개
 - 독일의 핀테크 기업인 와이어카드는 자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9억 유로(한화 약 2조 5,700억원)에 대한 분식을 자행
 - 와이어카드의 전·현직 경영진들은 금융사기 혐의로 잇따라 체포됨
 - 와이어카드를 10년 간 감사한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와 독일 금융당국의 감시소홀 및 의사결정 지체 등이 원인으로 지적됨
- **Citigroup fined \$400 million for risk management deficiencies [CNN, 2020.10.07]**
 - 은행업 규제당국(OCC)은 Citigroup의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절차 상 결함에 대하여 4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

V. Events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세미나, 포럼, 교육 프로그램 등 행사 소개

삼성 KPMG 제8회 Advanced Auditor Program_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감독

- 삼성 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는 지난 11월 12일(목) 온라인 웨비나를 통해 감사기구(감사위원, 감사), 현업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방안>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음
- 내 용

Time	Agenda	Speaker
14:00 ~ 14:05 [05 분]	Opening Remarks : 김교태 CEO (삼성 KPMG)	
14:05 ~ 14:35 [30 분]	Session I :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감사(위원회)의 역할	김유경 ACI 리더, 전무 (삼성 KPMG)
14:35 ~ 15:25 [50 분]	Session II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체크포인트 1: 설계 및 운영 관점	심정훈 상무 (삼성 KPMG)
15:25 ~ 15:35 [10 분]	Coffee / Tea Break	
15:35 ~ 16:15 [40 분]	Session III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체크포인트 2: 평가 및 보고 관점	강인혜 상무 (삼성 KPMG)
16:15 ~ 16:25 [10 분]	Q&A	
16:25 ~ 16:30 [05 분]	Closing Remarks : 한은섭 감사부문 대표 (삼성 KPMG)	

- Session I: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감사(위원회)의 역할 (삼성 KPMG 김유경 ACI 리더, 전무)
 - 최근 발생하였던 주요 분식 스캔들 사례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분식에 대한 감독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과 변화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음
 - 또한, 주요 사례 및 통계를 바탕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에 관한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설명하였으며 감독당국의 동향 및 최근 트렌드를 소개함으로써 향후 강화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였음

- **Session II: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체크포인트1: 설계 및 운영 관점 (삼정 KPMG 심정훈 상무)**
 - 미국과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준거 기준인 COSO Framework 의 이해를 위해 Framework 의 구성과 내부회계관리제도와의 관계를 설명 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의 5가지 구성요소와 17원칙에 대한 설명을 사례 위주로 전달하고 감사(위원회)가 점검해야 할 주요 체크포인트를 제공함
- **Session III: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체크포인트2: 평가 및 보고 관점 (삼정 KPMG 강인혜 상무)**
 - 총 5단계(변화관리, 위험평가, 설계평가, 운영평가, 최종평가)에 대한 전체 일정을 소개하고 주요 시점별로 감사(위원회)가 숙지하고 수행해야 할 체크포인트를 사례와 함께 제시함

[Back to top](#)

Key Contacts



한은섭 대표

삼정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



김유경 전무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문조직 Leader



한상현 전무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문조직 부Leader

- 위승훈 부대표**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 신장훈 부대표** 소비재 산업 부문 담당
- 변영훈 부대표**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 조원덕 부대표** 금융 산업 부문 담당
- 허세봉 부대표** 품질관리 담당
- 염승훈 부대표** 전자정보통신, 엔터테인먼트 산업 부문 담당
- 최재범 부대표** 금융 산업 부문 담당
- 권영민 부대표** 금융 산업 부문 담당
- 한상일 부대표** 소비재 산업 부문 담당

황재남 부대표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임근구 전무	건설업, 공기업, 교육 및 의료 산업 부문 담당
강정구 전무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박성배 전무	전자정보통신, 엔터테인먼트 산업 부문 담당
한상현 전무	전자정보통신, 엔터테인먼트 산업 부문 담당
이종우 전무	소비재 산업 부문 담당
이주한 전무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정 현 상무	전자정보통신, 엔터테인먼트 산업 부문 담당
박상욱 상무	건설업, 공기업, 교육 및 의료 산업 부문 담당
조정래 상무	금융 산업 부문 담당
신광근 상무	전산감사, 정보 리스크 관리 담당
전현호 상무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지동현 상무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황구철 상무	소비재 산업 부문 담당
심정훈 상무	내부통제 및 내부감사 리스크 컨설팅 담당
윤주현 상무	전자정보통신, 엔터테인먼트 산업 부문 담당
박상욱 상무	금융 산업 부문 담당
김연정 상무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정양기 상무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kpmg.com/socialmedia

kpmg.com/app

[Privacy](#) | [Legal](#)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0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